

# 11

## 동양 미술의 여정

- 1 동양 미술의 시대적·지역적·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 중국, 일본, 인도 및 아시아 각 지역 미술의 조형적 특징을 이해하고 미술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 3 아시아 미술 문화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일찍이 황허 문명과 인더스 문명을 기반으로 고대 문화의 기틀을 다진 아시아는 불교와 유교를 기반으로 서구와 다른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아시아 문화권의 여러 나라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저마다 특색 있는 미술을 꽃피웠다. 동양 미술의 시대적·지역적 맥락을 짚어 보며 나라별 미술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자.

테라코타 전사들은 당시 실제 병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 매우 사실적인 조각이야.



### 중국 한자와 유교로 광활한 대륙의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다

기원전 2000년경 황허 문명과 함께 시작된 중국은 한자와 유교 사상으로 광활한 대륙의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며 다채로운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종이, 붓, 먹을 개발하여 수묵화와 서예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인도에서 전해 들어온 불교를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전파하였다.

#### 거대한 규모의 고대 건축과 불교 석굴

한자의 시초인 갑골문과 청동 제기가 만들어진 선사 시대와 춘추 전국 시대 이후, 진·한 시대(기원전 221~220)에는 진시황릉과 만리장성이 축조되었고 유교적인 주제를 담은 분묘 미술이 등장하였다. 이어 위진 남북조 시대(220~589)에 북조에서는 둔황 석굴, 원강 석굴 등의 불교 미술이 발전하였고, 남조에서는 유교를 바탕으로 회화와 서예가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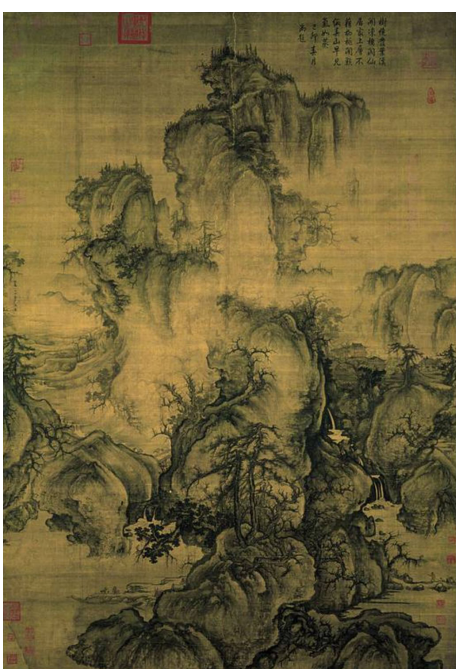
▲ **고개지**(顧愷/동진/348?~409) **여사잠도**(부본/비단에 채색/24.8×349.5cm/4세기, 남북조 시대)



▲ **진시황릉 병마용갱**(홍/기원전 210년경, 진 시대/시안, 1974년부터 발굴)



▲ **만리장성**(돌/성벽 길이 약 6,352km/기원전 220년경~16세기, 진~명 시대)



▲ **곽희**(郭熙/북송/1000?~1087?) **조춘도**(비단에 수묵 담채/158×108cm/1072년)

### 당·송대 국제적인 미술 문화의 황금기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한 당 시대(618~907)에는 수묵 산수화가 출현하였고,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당삼채 도자기를 제작하였다. 오대십국 시대(907~979)와 송 시대(960~1125)는 중국 회화의 전통을 확립하고 도자 공예가 번성하는 문화적 황금기를 향유한 시대였다. 북송 시대 이성과 곽희의 북송화풍 산수화와 남송 시대 마원과 하규의 남송화풍 산수화는 우리나라 조선 초기 산수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 **마원**(馬遠/남송/1160~1225) **산경춘행도**(비단에 수묵 담채/27.4×43cm/13세기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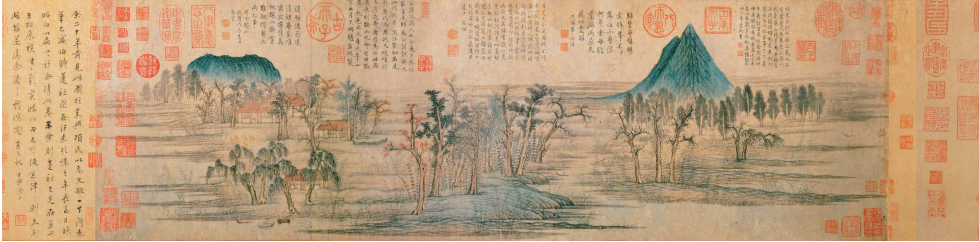


▲ **청자 봉황형 손잡이 병**(홍/높이 28.6cm/12세기, 남송 시대)

▲ **낙타를 탄 약사들**(당삼채/높이 66.5cm/8세기, 당 시대)

## 몽고족의 원 제국 시기에 꽃핀 복고적인 문인 전통

몽고족이 중국을 지배한 원(1271~1368) 제국 시기에 중국의 문인 화가들은 망국의 한을 수묵 산수화와 복고주의적 화풍에 담았다. 특히 조맹부는 옛것을 숭상하여 학자적인 시정(詩情)이 담긴 소박한 문인 산수화의 길을 열었으며 그의 영향 아래 오진, 황공망, 예찬, 왕몽 등 '원사대가'라 불리는 문인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가 유행하였다.



▲ 조맹부(趙孟頫/원/1254~1322) 작화추색도(종이에 수묵/28.4×93.2cm/1295년)



▲ 예찬(倪瓚/원/1301~1374) 유간한송도(종이에 수묵/59.7×50.4cm/1366년)

## 한족의 유교적인 명대 문화, 명을 계승한 만주족의 청대 문화

한족이 나라를 되찾은 명 시대(1368~1644)에는 자금성과 같은 거대한 궁궐이 축조되고 궁정 중심의 미술이 꽃피면서 당시 사람들은 화려한 청화 백자를 유럽에 수출하였다. 과감한 필선을 사용하는 전기의 절파 화풍과 문인을 중심으로 한 후기의 오파 화풍이 발전하여 조선 시대 회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만주족이 세운 청 시대(1644~1911)에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을 장려하였다. 전통 문인화풍이 유행하여 석도나 팔대산인 등이 개성 있는 수묵화를 발전시켰고 후기에는 서양에 문호를 개방하며 서양 화풍을 도입하였다.



▲ 장로(張路/명/1464~1538) 어부도(비단에 수묵/138×69.2cm/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 팔대산인(八大山人/중국/1626~1705) 팔팔조도(종이에 수묵/31.8×29.7cm/1694년)



▲ 자금성(1407~1420년/명 시대/베이징)



'출입이 금지된 자주색 성'이라는 뜻을 지닌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입니다.

## 근현대 중국의 문화적 변화와 확장

20세기 들어 극렬한 변화를 겪은 중국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서양 문명의 충격과 영향을 반영하는 다양한 현대 미술을 선보였다. 1945년 이후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운 미술을 전개했고, 문화 혁명의 암흑기를 지난 1980년대부터 서구 미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미술을 펼쳤다.



▲ 웨민권(岳敏君/중국/1962~) 하늘(캔버스에 유채/200×280cm/1997년)

◀ 장후안(張洵/중국/1965~) 양어장 수면 높이기(퍼포먼스 비디오 기록/1997년/베이징)

## 일본 대륙과 교류하며 섬나라의 특색을 담은 미술 문화를 펼치다

섬나라 특유의 전통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 문화를 발전시킨 일본은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 분명한 색채와 간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미술을 전개하였다. 일찍이 6세기에 한반도에서 불교가 전래된 이후 13세기 무렵까지 불교 미술의 황금기를 누렸고 중국과 교류하며 유입된 선종과 수묵화, 차와 정원 문화를 발전시켰다. 17세기 이후 서양 문물을 도입하면서 에도 시대에서 메이지 시대에 걸쳐 근세 회화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1867년 메이지 유신 이후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현대에 와서는 일본의 다원적 정체성을 시각화하며 국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 료안지 돌 정원(16세기, 무로마치 시대/교토)



▲ 모리무라 야스마사(森村泰昌/일본/1951~) 프리다 칼로와의 내적인 대화 (캔버스에 사진/149.9×119.4cm/2001년)



▲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에도 말기/1760~1849) 후지산 36경-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 (다색 목판화/24×35.6cm/1831~1833년)



▲ 오사카성(목재/1583년, 모모야마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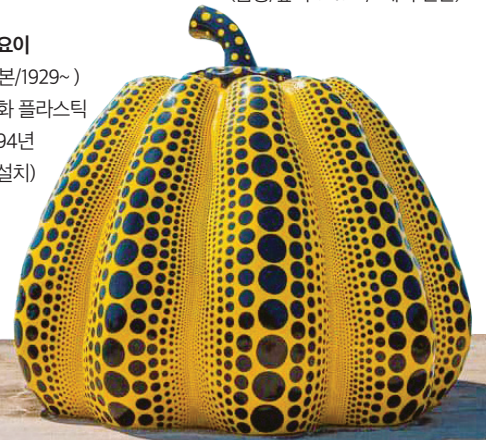
고류지 목조 반가 사유상은 출토지가 불분명한 우리나라 삼국 시대의 금동 반가 사유상을 신라에서 만든 작품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자생하는 적응으로 만들어졌고, 신라에서 가져온 불상을 고류지에 모셨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 시대의 불교 미술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 고류지 목조 반가 사유상(나무/높이 123.2cm/7세기경, 아스카 시대)

▲ 삼국 시대 금동 반가 사유상 (금동/높이 93.5cm/7세기 전반)

▶ 구사마 야요이 (草間彌生/일본/1929~) 노란 호박(강화 플라스틱 /높이 2m/1994년 나오시마 섬 설치)



## 알고 가기 19세기 유럽 인상주의 화가들이 일본 목판화에 매료되었던 이유

에도 시대(1603~1867)에 유행한 우키요에는 신혼 상인의 도시 문화와 서민의 일상 풍속을 그린 다색 목판화이다. '부유하는 세상'을 뜻하는 '우키요(浮世)'라는 명칭이 보여 주듯이 '덧없지만 아름다운 세속의 풍경'을 목판화로 찍어 대중에게 판매했던 그림이다. 우키요에의 독특한 조형미는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을 매료하였다. 높은 채도의 생생한 원색과 선명한 색면, 입체감을 제거한 평면 구성과 단순한 디자인 등은 전통 서양 회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선함을 주었다. 특히 일본 미술의 대담한 구성과 강렬한 색채에 매료된 반 고흐는 우키요에를 접한 뒤 어두웠던 자신의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 안도 히로시게(安藤広重/일본/1797~1858) 가메이 도의 자두나무(다색 목판화 /34×22.5cm/1857년)



▲ 반 고흐(van Gogh, Vincent/네덜란드/1853~1890) (히로시게를 따라 그린) 꽃피는 자두나무 과수원(캔버스에 유채/55.6×46.8cm/1887년)



▲ 카세트(Cassatt, Mary/미국/1844~1926) 목욕하는 여인(드라이포인트와 애쿼틴트 판화/36.4×26.8cm/1890~18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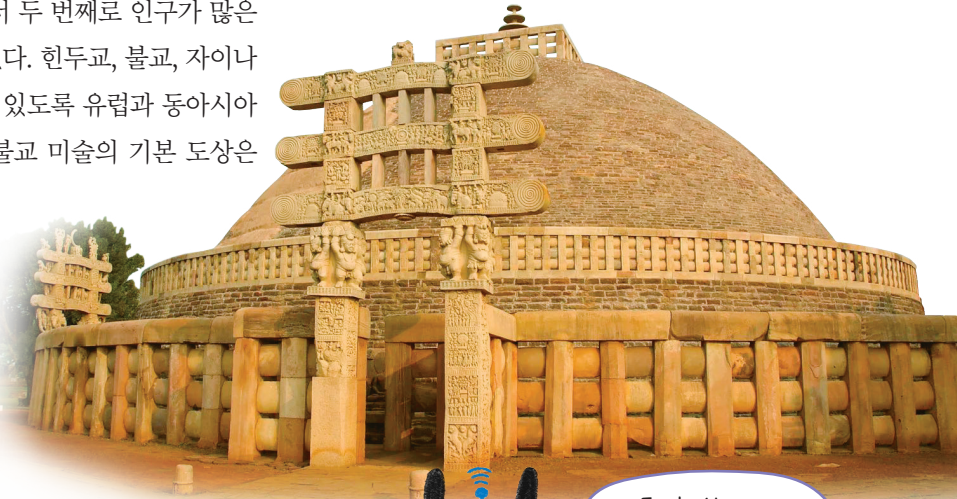
## 인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종교 미술 문화를 이룩하다

인더스 문명에 뿌리를 둔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미술을 발전시켰다.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등 다양한 종교가 탄생한 곳이자 동서양이 교류할 수 있도록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주요 지점이기도 했다. 특히 인도에서 형성된 불교 미술의 기본 도상은 동아시아 불교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 부처 좌상  
(붉은 사암/높이 70.5cm/  
2세기 초/마투라 지역)

◀ 부처 입상  
(편암/높이 120cm/  
1~2세기경/간다라 지역)



▲ 산치 대탑 스투파  
(석조/높이 16.5m/기원전 3세기/  
마디아프라데시주)



스투파는 석가모니가 죽은 뒤 그의 몸을 화장하여 나온 사리를 보관한 무덤입니다.

###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기원이 된 불교 미술

기원전 3세기에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을 건설한 아소카왕은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부처의 사리를 보관한 스투파를 세웠다. 이어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쿠산 시대 간다라 지역에서 등장한 간다라 불상은 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같은 시기에 마투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마투라 불상은 간다라 양식과 구별되는 인도 고유의 특징을 갖추었다.

### 인도인의 삶에 스며 있는 힌두 문화

기원전 1500년 무렵에 시작되었다가 굽타 시대에 고대의 브라만교와 토착 민간 신앙, 불교 등이 융합되어 종교로 발전한 힌두교는 '인도교'라고도 불린다. 파괴의 신으로 알려진 시바는 동시에 창조를 관장하는 최고의 신이다. 시바 신상은 춤을 추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 춤은 죽음과 삶이 순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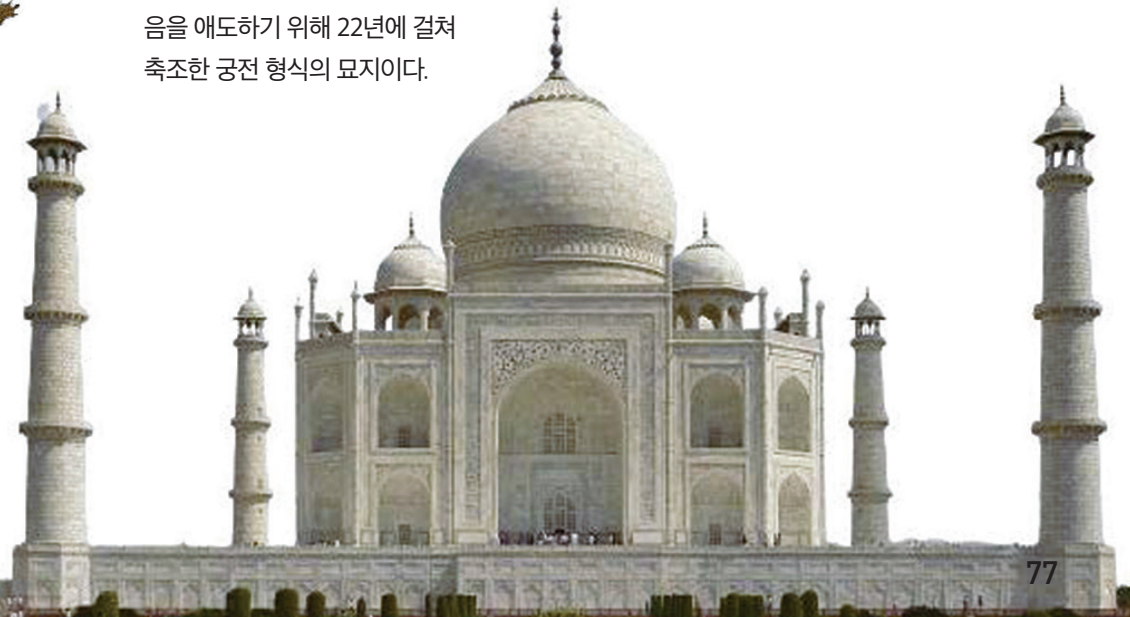
### 무굴 제국의 이슬람 문화

12세기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이슬람의 영향으로 불교와 힌두교 미술이 쇠퇴함에 따라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는 무굴 제국 시대에는 회화나 조각보다 궁전과 사원 등의 건축이 융성하였다. 인도 이슬람 건축을 대표하는 타지마할은 황제 샤자한이 황후 Mumtaz Mahal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22년에 걸쳐 축조한 궁전 형식의 묘지이다.



▲ 춤추는 신 시바(청동/76.20×57.15×17.78cm/950~1000년경)

▶ 타지마할(대리석/높이 65m/1631~47년 무굴 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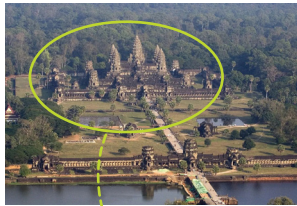


## 동남아시아 다양한 민족, 다채로운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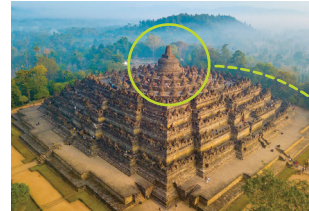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타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대륙 일부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르는 섬 국가들을 지칭한다. 아시아의 동남부에 위치한 이곳은 높은 산맥과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며 다양한 언어와 민족, 다채로운 문화가 존재한다. 특히 10세기에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베트남 왕국은 한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고, 13세기 말 자바섬의 왕국에 기원을 둔 인도네시아는 세계 네 번째 규모의 방대한 영토에 이슬람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13세기에 강력한 왕국으로 등장한 타이는 독실한 불교 국가로 불교문화를 발전시켰으며 동남아시아 대부분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던 근대에 유일하게 독립 국가를 유지하였다.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각기 다른 고유의 문화 특징을 보여 주면서도 전반적으로 중국의 한자와 유교, 인도의 불교,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수용하여 복합적인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소승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거대한 종교 건축과 조각을 남겼다.



▲ (좌) 설법하는 부처(은 합금/39.4×11.4×9.5cm/8~9세기/타이) (우) 가네샤 좌상(청동/31.4×18.4×12.7cm/15세기/타이)  
가네샤는 인간의 몸에 코끼리 얼굴을 한 힌두교의 신이다. 모든 장애를 없애 주고 지혜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 힌두 문화권에서는 가네샤 숭배가 널리 퍼져 있다.



▼ **앙코르 와트**(12세기 초/캄보디아) 중앙 사당 1개와 탑 5개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최대의 사원 유적이다. 수백 년 동안 캄보디아의 깊은 정글에 감추어져 있던 이곳은 19세기 중반 프랑스 탐험가가 처음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 **보로부두르 사원**(8세기 후반~9세기 전반/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정글에 있는 최대 불교 사원이다. 사원 꼭대기에 종 모양 스투파 70여 개가 있다.



▲ **앙코르 톼의 바이온 사원 인면 탑**(13세기 전반/캄보디아)



◀ **시바 두상**(사암/높이 40cm/10세기/베트남)



### 탑의 기원과 지역에 따른 변천

탑(塔)은 열반에 든 부처를 화장한 뒤 나온 사리를 봉안한 인도의 '스투파'에서 유래했다. 중국에서 이 '스투파'를 한자로 음역하여 '탑파'라고 불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줄여 탑으로 칭했다. 인도의 반구형 석조 스투파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였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타이는 돔 형태나 종 모양 스투파가 많고 중국은 다층 다각의 누각형 목탑이 발달했으며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 전탑 이후 사각의 삼층 또는 다층 석탑이 주를 이루었다. 나라별로 그 형태가 다르지만 탑은 어디에서나 부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 중아시아 동서 문명의 교차로였던 드넓은 대륙

아시아 대륙 중앙부의 광대한 건조 지대인 중앙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을 가리키며 넓게는 중국의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몽골, 티베트, 아프가니스탄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고대 이래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은 실크 로드를 오가며 동서 문명을 교류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세라피스(높이 15.5cm/2~3세기경/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허텐 지역에서 출토된 이집트 신상이다. 고대 지중해 문화가 중앙아시아 동부까지 전해졌음을 보여 준다.)



▲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부분/7세기 중엽/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의 왕을 알현하는 외국 사신들을 그린 궁전 벽화이다. 새의 깃털로 장식한 모자인 조우관을 쓴 고구려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마드라사(15세기~17세기/사마르칸트) 마드라사는 15세기 초 티무르 제국의 사마르칸트에 세워진 대학이다. 이슬람 교리뿐만 아니라 천문학과 수학을 가르쳤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속해 있는 사마르칸트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알고 가기 실크 로드를 통한 동서 문화의 교류

근세 이전 동서 교역로였던 실크 로드는 중국 장안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거쳐 고대 시리아의 안티오크와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 이르는 상업·문화 교류의 길이었다. 실크 로드로 동서 문화를 교류했던 전성기는 중국의 당 시대(618~907)였지만 동서를 가로지르는 기본 경로는 이미 한 시대(기원전 202~기원후 220)에 개척되었다. 낙타를 탄 서역 상인들은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 등을 유럽으로 전했고 서아시아와 이집트의 유리 제품, 신상 조각, 황금 동전 등을 중국과 한반도에 들여왔다.

**실크 로드에서 발굴된 유물**

**이집트 남신 세라피스 좌상**  
신장 허텐 지역/  
2~3세기

**유리잔**  
(카자흐스탄의 훈족 무덤 출토/5세기)  
유리 공예품은 고급 수입품이었다.

**황금 동전**  
(투루판 아스타나 고분 출토/6세기)  
실크 로드 상인은 동로마 제국의 황금 동전을 화폐로 사용했다. 투루판에서 출토된 이 동전은 비잔틴 동전과 유사하게 중앙아시아에서 주조한 것이다.

**유리잔**  
(경주 천마총 출토/6세기)  
정교한 이 청색 유리잔은 이집트에서 만들었다.



▲ 낙타를 탄 서역인(당삼채/8세기경)

## 단원 점검하기

- 동양 미술의 시대적·지역적·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 동양 미술 작품의 조형적 특징을 파악하고 미술 용어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동양 각 지역 미술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문화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가?

꽃들이  
죽지 않도록  
나는 꽃을 그린다.  
- 프리다 칼로 -